

이배 개인전 | PRESS RELEASE

전 시 명 | Between

전 시 기 간 | 2024년 9월 4일 (수) - 2024년 11월 10일 (일)

전 시 장 소 | 조현화랑_서울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249 신라호텔 B1

개 관 시 간 | 화 - 일 10:30 - 18:30

전 시 문 의 | 유 수 진 M 010-9339-9680

E press@johyungallery.com

Johyun Gallery

한지로 도배된 바닥 위로 흑백의 브론즈 조각이 서로 조응하듯 서있다. 신라호텔에 위치한 조현화랑_서울의 단아한 공간이 하나의 화폭이 되어 관람객을 작품 안으로 초대한다. 도심 속 지하 공간을 가득 채우는 비정형의 구도는 문명 아래 묻혀있던 고대의 유적지를 발견할 때 마주하게 되는 경외심과도 유사한 근원에 대한 원초적 기억을 불러일으킨다. 작품에 초대되어 어우러지는 관람객, 그리고 노란빛 창문을 통해 작품에 은은하게 퍼지는 빛은 2차원과 3차원으로 구성된 흑백의 추상적 서체에 초월적 시간과 생명력을 더한다.

조현화랑_서울에서 2024년 9월 4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이배의 개인전 <Between>은 각각 검정과 흰색으로 제작된 높이 2m, 폭 2m70cm의 브론즈 조각을 선보인다. 이는 한쪽 벽면을 채우는 회화 작품의 검정 붓질과 여백의 흰 형태와 함께 공간 속에서 온전한 조화를 이룬다. 빛을 흡수하는 검정과 반사하는 흰색 사이로 흘러드는 노란 빛은 작가의 고향 청도에서 매년 정월대보름에 열리는 달집태우기의 달빛을 재현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의례가 끝나면 사람들은 다 타고 남은 달집에서 숯을 집는다. 2022년을 기점으로 이배의 전시가 외부로 확장하는 공간을 배경으로 기념비적인 규모의 설치 작품을 선보였다면, 이번 전시는 무게의 중심축을 옮겨, 바깥에 위치한 것들을 내부로 끌어들이는 듯 하다.

문명의 중심이 되는 공간에서 보이지 않는 근원을 향하는 이러한 구조의 전시는 2023년 뉴욕 록펠러 센터에서 있었던 조현화랑 기획전 <기원, 출현, 회귀>에서도 구성된 바 있다. 맨하탄 중심부에 위치한 록펠러 센터의 링크 갤러리 천장에는 채널 가든이 위치한다. 이곳에 한달간 큰 가마에서 구워서 만들어낸 큰 숯덩어리를 덩어리채 묶어 7m 높이 규모의 이슈드푸 조각을 선보이고, 지하층의 내부 전시장에서는 숯의 표면을 연마하여 검은 빛을 길어낸 이슈드푸가 길게 연작으로 걸렸다. 지상 위로 쌓아 올라간 조각과, 지하의 옆으로 길게 늘어진 회화 작품이 하늘을 향한 인간의 염원과 서로를 잇는 순환적 관계성을 교차시키며 거대한 우주와 같은 숯의 대비를 보여주었다.

올해 베니스 비엔날레 병행전으로 빌모트 재단에서 진행된 이배의 개인전 <달집태우기>에서는 한지를 바른 전시장 한가운데 먹을 상징한 거대한 검은색 화강암 조각을 세우고 벽면과 바닥을 가로지르는 붓질 안으로 관람객을 초대하였다. 신을 벗고 다시 신는 수고로움을 감수하고 작품을 관람하게 하는 것은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게 하려는 작가의 의도도 있었다. 전시 공간은 베니스였지만, 뒤뜰에 마련한 노란 빛이 들어오는 달빛 통로 구조물을 통해 바라보는 베니스 운하는 작가의 고향 청도에서 있었던 달집태우기 의례가 치러진 청도천의 달빛을 잇는다. “그림 안으로 들어온 관람객이 물과 연결되도록 의도했다. 일종의 자연과 사람의 순환 구조를 만든 것이다” 라고 작가는 설명한다.

“인간은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의 가운데 있는 존재이다. 삶이 형태를 지닌 시각 세계로 존재하는 한편, 그 내면에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넓고 깊고 크게 존재한다. ... 나는 내면의 세계가 외부를 관리하고 통제하며, 제도화 시켜나간다고 생각한다. 그런면에서 내면과 외부를 소통시키는 것이야말로 예술의 역할이라고 본다.” 이배는 현대미술의 새로운 방법론을 꿈꾸기 위해 찾아간 프랑스에서 숯을 통해 아마득하게 잊어버린 근원을 찾았다. 그후 30년 넘도록 숯이라는 재료와 흑백의 서체적 추상을 통해 한국회화를 국제무대에 선보여온 그가 이번 전시를 통해 내부로 신을 벗고 들어오길 초대한다. 다시금 근원으로 돌아와서 거친 여정의 먼지를 털고 거룩한 곳에서 새 출발을 입도록 말이다.

조현화랑_서울에서 열리는 <Between>은 올해 두번째 이배 개인전으로, 지난 5월 10일부터 8월 18일까지 조현화랑_달맞이에서 이배 개인전 <흐르는>을 개최한 바 있다. 이배의 신체성에 주목한 개인전 <흐르는>에서는 베니스비엔날레를 통해 최초로 시도한 이배의 영상 작업 <버닝(Burning)> 이 소개되었다. 이 영상의 일부가 서울 프리즈 기간을 맞이하여 2024년 8월 29일부터 9월 21일까지 코엑스 외벽에 설치된 커브드 LED 전광판을 통해 송출될 예정이다.

작가소개

<https://www.johyungallery.com/ko/artists/50-lee-bae/biography/>

이배 작가는 30년 넘도록 ‘숯’이라는 재료와 흑백의 서체적 추상을 통해 ‘한국회화’를 국제무대에 선보이며, 가장 ‘동양적인 작가’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서양 미술재료 대신 한국인들에게 친숙한 재료인 숯을 작품에 사용하기 시작했다. 작품에는 숯이 가지고 있는 삶과 죽음, 순환과 나눔 등의 태생적 관념 위에 작가 특유의 예술적 상상력이 더해진다. 작가는 숯을 이용해 드로잉, 캔버스, 설치 등의 다양한 형태의 작업을 해오면서 자신의 영역을 확장시켜왔다. 캔버스 위에 절단한 숯조각들을 뽁뽁하게 놓고 접합한 후 표면을 연마해낸 Issu du feu(불로부터), 숯가루를 짓이겨 미디엄을 사용해 화면에 두껍게 안착시킨 Landscape(풍경)와 목탄에서 추출한 검은 안료로 캔버스 위에 형태를 그리고 밀랍과 같은 두꺼운 재료를 여러 번 덮은 작업인 Acrylic meidum(아크릴 미디엄), 숯가루가 섞인 먹물로 다양한 형태의 붓질 그대로를 보여주는 Brushstroke(붓질), 숯 자체 또는 브론즈로 보여주는 조각 시리즈 등이 있다. 그는 숯을 사용하는 이유가 그 안에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자연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현재 그의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과 서울시립미술관, 리움미술관, 마그파운데이션, 프랑스 파리 기메 박물관, 스페인 뿌리바도 알레 그로 재단을 포함한 국내외 주요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보도자료 내 모든 이미지들은 함께 첨부된 저작권 정보와 조현화랑 제공을 함께 명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당 이미지는 전시기간 내 홍보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편집이 불가합니다.

*고화질 이미지는 아래의 표기된 링크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화질 이미지 연결\]](#)





Johyun Gallery



Issu du feu white line A1, 2023

Charcoal on canvas

117 x 82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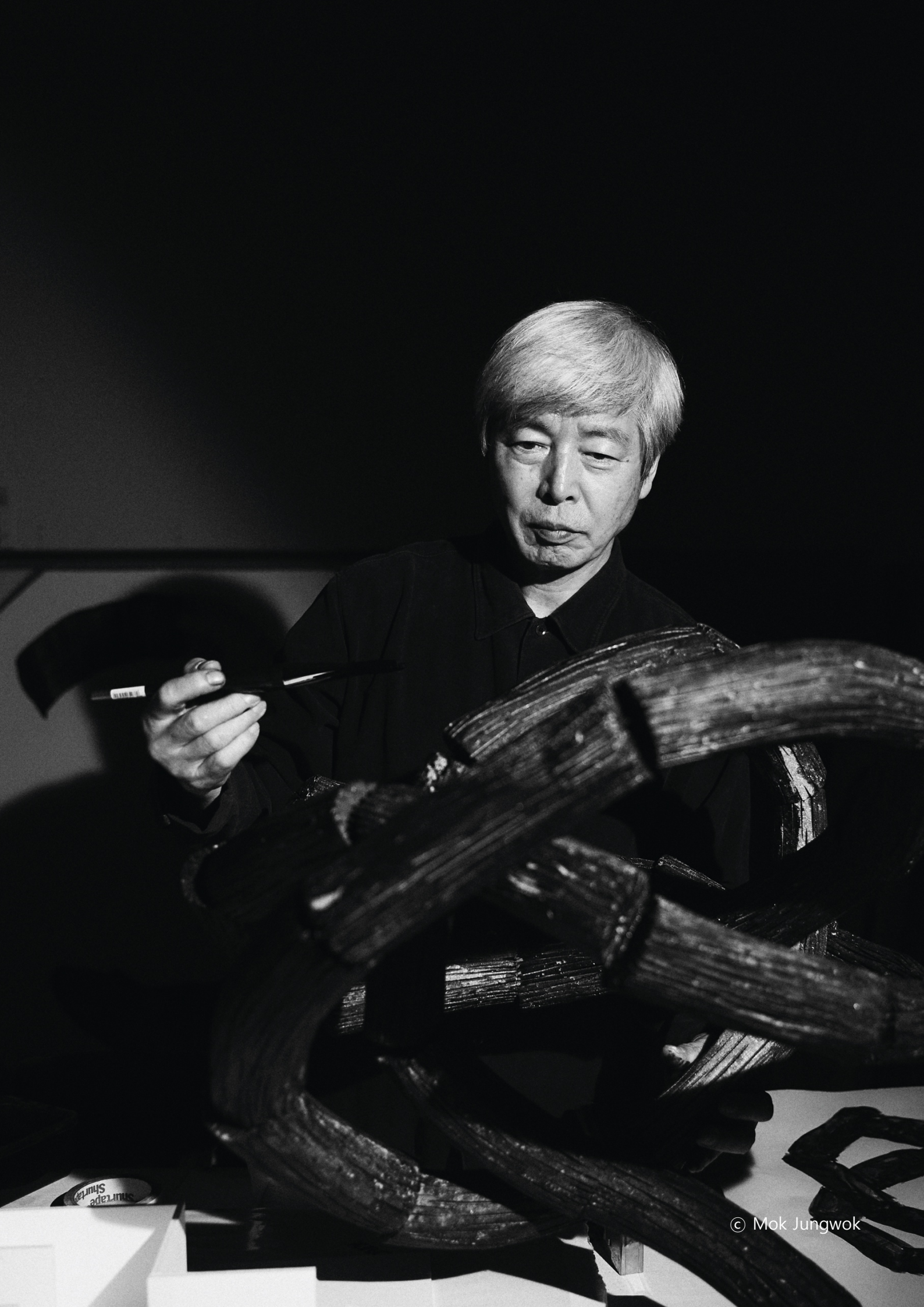
조현화랑_서울, 9월 4일, 이 배 개인전 개최



Acrylic medium J27, 2023

Charcoal on Canvas

117 x 82 cm



Lee Bae Solo Exhibition | PRESS RELEASE

Exhibition Title | Between
Exhibition Duration | 4 September (Wed) – November 10 (Sun), 2024
Exhibition Venue | Johyun Gallery_Seoul B1 249 Dongho-ro, Jung-gu, Seoul
Opening Hour | Tuesday - Sunday 10:30 – 18:30
Exhibition Inquiries | T +82 51 747 8853 E press@johyungallery.com

Johyun Gallery

Bronze sculptures stand in harmonious acquiescence, their black and white forms still on the exhibition hall floor covered in *hanji*—Korean mulberry paper. The white cube space of Johyun Gallery_Seoul, nested in Hotel Shilla, welcomes visitors onto the canvas-space. The amorphous compositions of the underground space in Seoul's downtown conjure echoes of our origins, resonating with the awe of discovering the ruins of a previous civilization. The audience is invited to stand in harmony with the works, while the gentle glow from the yellow window structure of the exhibition hall adds the wax and wane of transcendent time and life over the abstract calligraphic blacks and negative spaces.

Johyun Gallery_Seoul is pleased to announce *Between*, Lee Bae's solo exhibition, from September 4 to November 10, 2024. The exhibition presents bronze sculptures 2m in height and 2.7m in width, one in black and the other in white. A charcoal-black brushstroke spreads across one wall, giving form to negative space in perfect harmony. The yellow light flooding onto the two sculptures—one umbral black and the other brilliant white—is reminiscent of the artist's hometown moonlight. It evokes the lume over the ritualistic burning of the moon-house, or *Daljiptaeugi* (*La Maison de la Lune Brûlée*), held every year on the first full moon of the lunar year in the artist's hometown of Cheongdo. Townsfolk gathered charcoal from the remains of this lunar-pyro-ritual. Lee began showing a series of monumental installation works in 2022, set upon backdrops of expanding, externality-directed spaces. This exhibition pivots to shift the center of gravity, drawing and pulling that externality back in.

This deep-retrospective structure, gravitating toward an invisible foundation at the very focal point of civilization, was evident in Johyun Gallery's 2023 special exhibition *ORIGIN, EMERGENCE and RETURN* at the Rockefeller Center in New York. At the iconic and historic landmark in the heart of Midtown Manhattan, with the Channel Gardens above the Rink Level Gallery, a site-specific 7m-tall *Issu du feu* sculpture of stacked charcoals was on display. Tied into pine charcoal bundles of ropey and columnar pine, each stout branch was fired in a large kiln for a month. In the indoor space, Lee presented a series of works from the *Issu du feu* series, their polished charcoal surfaces shimmering with luster. Between the charcoal-stacked sculpture exhibited in the above-ground garden and the serial works exhibited in horizontal succession below street level, charcoal-black pointed us to the cosmic truth of connectedness between our yearning for heaven and human connection.

Lee Bae presented *La Maison de la Lune Brûlée* at this year's Venice Biennale, a solo exhibition at the Wilmotte Foundation. In the middle of the exhibition hall, where the floor is entirely covered with Korean *hanji*, stands a huge black granite sculpture symbolizing *meok* (Korean ink stick), inviting visitors into the brushstrokes that run across the walls and floor. Requiring visitors to remove their shoes before stepping onto the paper-floor space was partly Lee's intent to draw visitors into a Korean cultural experience. The Venetian canals seen beyond the yellow moonlight passage of the backyard resemble the moonlit evenings by the creek in the artist's hometown Cheongdo, where the *Daljiptaeugi* (moon house burning) was held. "I intended to connect the audience with the water, to complete a cycle of sorts between nature and people," explains Lee.

"We as human beings—or as humanity—stand somewhere between the microcosm and the macrocosm. Much of our lives are situated in the external and tangible realm... However, there is an entire cosmos of spiritual and

Johyun Gallery

metaphysical nature within as well; its immense breadth and depth is invisible to the eye... I believe it is what is inside that defines and structures the outside world. It creates, institutionalizes, and controls the outer world... There is a role for art there, I believe. Consociating the inner world and external world so there can be some meaningful flux."

Thirty years ago, Lee moved to France, dreaming of a way to take his practice forward. There, a mnemonic encounter with charcoal awoke him to his Lethean origin. Since then, Lee Bae has worked with charcoal materials and black-and-white calligraphic abstraction, showcasing Korean painting on the international stage. Through this latest exhibition, he invites us to step out of our shoes and back into our forgotten place of origin, to shake off the journey's dust from our feet and to start anew in a place set apart.

Johyun Gallery_Seoul presents *Between*, Lee Bae's second solo exhibition this year. Previously, from May 10 to August 18, Johyun Gallery_Dalmaji presented Lee Bae's solo exhibition *Flowing*, which focused on Lee's physicality, and introduced his video work *Burning*, unveiled at the Venice Biennale. For his latest exhibition, a portion of this video will be shown on the curved LED billboard installed on the exterior wall of COEX from August 29 to September 21, 2024, coinciding with the Seoul Frieze period.

Artist Introduction

<https://www.johyungallery.com/ko/artists/50-lee-bae/biography/>

Lee Bae focuses on the expressive potential of charcoal as a medium. Over the course of nearly three decades, Lee has dedicated himself to creating a diverse range of iterations of Korean painting through his use of charcoal and abstract forms that are self-sufficient and rich in spiritual and energetic qualities. By exploring immanent notions such as yielding, respiring, and circulation, which are embodied by charcoal as a material, Lee's work resonates with themes of life and death, absence and presence, light and shadow, form, and emptiness. Lee's oeuvre spans a wide range of mediums and forms, from drawings to canvas-based works, as well as installations, with each new work serving to expand upon his unique vision and approach. Lee's works have been featured at museums and institutions worldwide including: Phi Foundation, Montreal, Canada; Indang Museum, Daegu; Wilmotte Foundation, Venice; Fondation Maeght, Saint-Paul de Vence; Musée des Beaux-Arts, Vannes; and Musée Guimet, Paris. Among many others, Lee's work is in the permanent collections of museums including the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Gwacheon; Seoul Museum of Art, Seoul; Leeum-Samsung Museum of Art, Seoul; Fondation Maeght, Saint-Paul de Vence; Musée Guimet, Paris; Baruj Foundation, Barcelona, and Privada Allegro Foundation, Madrid.

* If you use the artwork images and information, please be sure to include <Photo courtesy of Johyun Gallery>

* High-resolution images can be downloaded via the Dropbox link below.

[\[High-resolution images link below\]](#)

Johyun Gallery



Installation view : Johyun Gallery_Seoul

Lee Bae Solo Exhibition Between at Johyun Gallery_Seoul



Johyun Gallery



Issu du feu white line A1, 2023

Charcoal on canvas

117 x 82 cm

Lee Bae Solo Exhibition Between at Johyun Gallery_Seoul

Johyun Gallery



Acrylic medium J27, 2023

Charcoal on Canvas

117 x 82 cm

Lee Bae Solo Exhibition Between at Johyun Gallery_Seoul

